

쌀가루용 벼의 이앙시기에 따른 출수변화 및 수발아 발생 특징

정재혁^{1*}, 황운하¹, 이현석¹, 양서영¹, 임연화¹, 이충근¹, 최경진¹, 오명규¹

¹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

[서론]

벼 수발아는 등숙기 동안에 20℃ 이상과 지속적인 강우 조건이 되면 발생하게 된다. 쌀가루용 벼는 일반적으로 수발아 발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발아 발생을 낮게 하기 위해서는 등숙기에 수발아 발생 조건을 회피해야 한다. 쌀가루용 벼의 이앙시기는 출수기와 등숙기 환경을 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발아 발생 특징을 분석하고자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쌀가루용 벼의 이앙시기에 따른 출수기와 수발아 발생을 알아보기 위해 이앙시기를 5월 15일, 5월 25일, 6월 05일, 6월 15일, 6월 25일, 7월 05일에 20일모를 국립식량과학원 전주 포장에 이앙하였다. 쌀가루용 벼는 설갱, 한가루, 전주613호, 전주614호 등 9계통을 시험재료로 하였다. 수발아는 적산온도가 1100~1200℃에 도달했을 때 이삭을 취하여 조사하였다. 전주지역의 강우량은 8월~10월 기상청 자료를 활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이앙시기에 따른 쌀가루용 벼의 포장생육일 변화를 분석한 결과 5월 15일 이앙을 기준으로 이앙시기가 10일 늦어질수록 포장 생육일이 5일 단축되어 출수기가 빨라지는 경향이였다. 이는 품종 간에 차이를 보여 전주계통, 수원542, 철원98의 경우 이앙시기가 5월 15일을 기준으로 10일 늦어질수록 출수기가 5.7일 단축되는 반면 밀양계통, 수원613, 한가루 및 설갱의 경우 출수기 단축이 4일로 감소되는 경향이였다. 포장재료의 수발아 발생양상을 분석한 결과 수원542호, 전주613호, 한가루의 수발아율이 약 10%로 높은 경향이였으며 이앙시기로는 6월 25일에 이앙 시 수발아 발생율이 가장 높았으나 7월 5일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수발아 발생율이 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25일 이앙에서 수발아 발생율이 높은 것은 평균출수기인 8월 22일 이후 9월 중~하순에 내린 강우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 (과제번호: PJ01296001)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주저자: Tel. 063-238-5265, E-mail. rodnf2010@korea.kr